

[국문 요약본]

**노인의 디지털 문해력 강화 교육(Digital Literacy Training)을 위한 분석 보고서
(DIGITOL Context Analysis Report – A cross-country analysis of digital literacy
training for generations to combat fake news together)**

- 요약 및 국문번역: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이영미 연구원 (lym3663@asemgac.org)

‘DIGITOL 프로젝트’의 목표는 노인의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을 개발하고 EU 내 노인에게 대한 공동의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가짜 뉴스의 부정적 영향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또한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수단을 통해 전달되는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에 대한 인식을 높여 노인에게 대한 차별에 맞서고, 이들의 사회적 결속과 연대 및 적극적 시민권(active citizenship)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DIGITOL은 혁신적인 세대간 교육 사례를 활용하고 노인이 비형식적 교육(non-formal education)과 공동 제작 훈련프로그램(co-created training)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DIGITOL 프로젝트를 위한 컨소시엄은 6개 유럽국가 –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의 관련 전문성이 있는 대표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벨기에의 에이지 플랫폼 유럽(AGE Platform Europe)을 포함하는 이 컨소시엄은 노인의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는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리아,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노인의 디지털 통합 관련 국가 현황을 분석한 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보고서 주요내용**

갈수록 복잡해지고 심화되는 허위 정보(disinformation)의 문제와 통신과 서비스 등 다방면의 디지털화는 위협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에 중요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노인의 디지털 및 미디어 사용능력 향상 훈련에 대한 필요성과 선호도에 대한 현황 분석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훈련에 대한 노인의 필요와 관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허위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디지털 및 미디어 사용능력 훈련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는 데 있으며, 궁극적으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함께 허위정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세대 간 훈련 이니셔티브(intergenerational training initiative)인 DIGITOL Digital Social Academy의 구체화를 위한 실질적 권고를 제공하고자 한다.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는 하이브리드 방식(hybrid methodology)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5 개 언어(불가리아어, 영어, 독일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의 온라인 설문조사와 디지털, 미디어 사용능력 분야의 전문가 및 노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로 구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불가리아,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4 개국의 국가보고서를 종합하여 보완한 것이며, 각각의 보고서는 DIGITOL 웹사이트(www.digitol.eu)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IGITOL 데이터 수집의 결과는 보다 효과적인 사회 포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회 전체의 디지털 문해력 및 미디어 사용능력을 향상하는 것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일관되게 DIGITOL 의 연구 결과 또한 개인의 디지털 능력과 훈련의 필요성이 연령보다는 사회 경제적 요인 및 생활 환경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 성취도가 낮거나, 빈곤을 경험하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이주 이력이 있거나, 고립된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예: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나 손주가 없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등)들은 비교적 낮은 디지털 사용능력을 보유하게 될 수 있다.

많은 노인들이 위와 같은 상황들 중 한 가지 또는 여러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디지털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러나 아직 노동 연령에 해당하는지 그리고/또는 각자의 활동 분야 등 노인들 개개인의 특성은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heterogeneity of older persons) 이러한 이질성이 디지털 능력과 문해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의 변수로 반영되기도 한다.

많은 측면에서 DIGITOL 의 연구결과는 허위 정보를 걸러내고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숙련도에 대한 연령 집단 전반에 걸친 공통된 관심을 보여준다. 젊은 응답자들에 비해 고령의 응답자들은 아주 약간 더 능숙한 디지털 기술 사용자가 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연령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적절한 기술을 갖추게 되면 디지털화된 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노인을 위한 훈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한 DIGITOL 의 설문조사에 전문가와 노인 당사자 모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선 분야를 언급하였다:

- **가. 인터넷을 활용하여 노인의 참여 확대:** 예) 노인들이 소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앱의 보다 숙련된 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노인들이 온라인 토론 등에서 발언권을 갖도록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에 맞서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 등
- **나. 디지털화된 서비스를 노인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 노인들이 온라인 बैं킹 이용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그들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온라인으로 세금 납부, 사회복지 혜택 확인 등 필요한 행정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병원 예약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 **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참여를 위한 지식 전달:** 예)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를 식별하는 방법,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방법, 온라인 사기를 식별하고 피하는 방법, 가짜 뉴스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crap detection") 등

많은 노인 응답자들이 디지털 문해력과 가짜 뉴스에 대한 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었으며, 자신들의 디지털 사용능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들도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 요인들에는 접근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모든 응답자로부터 확인)과 적절한 훈련 제공의 부재,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이니셔티브의 부족이 포함된다. 또한 이들은 디지털 세계에 참여할 동기와 시간이 부족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연구결과는 또한 디지털 및 미디어 사용능력에 대한 수많은 이니셔티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정보를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젊은 세대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DIGITOL 의 연구가 확인한 대부분의 디지털 및 미디어 리터러시 이니셔티브는 교육 범위의 단지 일부로서 온라인 미디어와 정보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미디어와 정보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젊은 세대가 사이버 폭력(cyber bullying)의 상황이나 허위 정보에 직면하였을 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change makers) 직접적으로 돕거나, 교육자와 가족 친지들이 제공하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젊은 사람들의 디지털 교육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기도 한다.

이러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니셔티브에 대한 분석은 고령층 대상 이니셔티브에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노인들이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상호작용적 방식을 활용하거나, 노인들과 접촉하는 전문가 및 가족들을 간접적으로 훈련하는 것 등이다. DIGITOL 프로젝트에 의해 식별된 교육 이니셔티브 중 일부는 이미 이러한 접근법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었다. 해당 이니셔티브에는 노인 당사자나 노인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전문가가 노인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 도구나 자료를 갖추게 하기 위한 자원의 제공, 청년과 노인 간의 지식 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세대 간 이니셔티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이니셔티브의 경우, 단순히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아주 극소수의 프로그램만이 노인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노인대학(Third Age universities)과 동료 간 학습법(peer-to-peer teaching) 및 세대 간 접근법을 활용하는 단체들에서 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이니셔티브는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과 달리 디지털 기기의 기본 사용 방법,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방법, 온라인 안전 등 보다 단순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DIGITOL 분석 보고서의 결과는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보다 노인 친화적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개발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수의 기존 훈련 이니셔티브 및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와, 전문가 및 노인 당사자의 자문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세대 간 미디어 리터러시 훈련을 설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 교육생들의 실질적 필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적절성**
- **교육 내용 및 형식/수행 방식(logistics)의 접근성**
- 대상이 되는 교육생과 소통을 가능케 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방식**
- **강사의 뛰어난 사교 기술(social skills)과 대인관계**
- (특히 세대 간 프로그램에서) 모든 연령층 참여자들의 상호 존중과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

세대 간 참여가 바탕이 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표현되고 경청 되도록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 간 타협이 용이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프로젝트 모든 단계에서의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모두의 주인의식과 참여는 서로 다른 연령 집단 간 상호 이해를 점진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점을 제공하여 모든 교육 참가자들이 디지털 학습의 결과를 각자의 일상생활의 상황에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디지털 사회 아카데미(Digital Social Academy)”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본 보고서에서 발견된 것처럼 교육 참가자들이 단순히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학습 과정에 있어 주인의식을 가지게 하고, 세대 간 상호 존중을 가능케 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성공 요인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 모두의 참여를 기반으로 강사와 교육 참가자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지역과 국제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권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자료를 요약 및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